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5호 [루게 제25764호] 주제 106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 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 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당중앙위원회, 교육부문의 책임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오래도 그림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만나뵈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나오시지 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러저올라 하늘을 진감하였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 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은 조국과 후대들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었다. 뜻깊은 평양전학을 하도록 친어머니 사랑을



배풀어주시는데 이어 오늘은 또다시 한생애 잊지 못할 뜨거운 은정을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몫 아낌없이 내대는 무철한 신념과 백육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누가

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을 곳곳이 걸어나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지도반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이들 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지닌 혁명가적인생관, 후대관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 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앞으로 당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 교수교양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후대들을 사회주의조선의 믿음직한 주인공들로 육성키워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일편단심 당과 혁명을 위한 붉은 마음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따라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방에 빛내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출발,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송



주제식일렉트릭의 장대한 피성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필승불패성을 세계만방에 떨친 승리의 드높은 긍지를 안고 뜻깊은 평양제류의 나날을 보낸 미더운 핵개발자들이 11일 귀도에 올랐다.

민안민안축사에 특기할 대사반을 안아온 승리자들을 열렬히 축하하는 환영의 꽃물결이 세차게 끓어올랐던 수도의 거리들은 이날 한층더욱 잊지 못할 행복과 영광을 안겨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달성을 위한 투쟁전투로 뛰어나는 우리의 영웅한 핵무기개발자들에게 대한 환송열기로 설레이고 있었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리만전송지, 후송부동지를 비롯한 항공양위원의 책임일꾼들이 전송하였다.

의 장한 영웅들에게 군중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전우적인사를 보내고 뜨거운 응원과 학생취주악대들이 울리는 힘있는 노래들은 연도를 들뜨게 하였다.

병정의 기치들이 우리 국가를 존엄높은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진열에 당당히 울려서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정은장군관가》와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를 비롯한 노래선율이 연도에 장중하게 울려져서였다.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피스행렬이 대학거리에 들어서자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김정숙평양직공장, 평양무산공장 로동계급이 철단과학기술로 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을 총적하게 발붙여온 그들에게 전우적격려를 보내며 환송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거머쥔 결사관철할 불타는 총정과 고결한 망심을 지니고 국가핵무력건설의 전조선에서 조국유 미반드는 역혁의 부피가 되어 사생정단의 천안고비를 굴복없이 강행돌파해온 우리 당의 장한 핵전투원들을 평양제류의 나날 이르는 곳마다에서 열렬히 환영해온 수도시민들이었다.

헤여지는 이 시각에도 연도에 달려나와 바래워주는 수도의 작게총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진열육의 정을 가슴후덕게 느끼며 핵과학자, 기술자들은 인생의 가장 고귀한 행복과 영광을 안겨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핵무력건설의 총사령관, 위대한 스승이 되시어 수소탄시험의 전파정을 전두에서 이끌어주시고도 제일먼저 핵개발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이북으로 성상을 축하하는 인사를 보내주시고 만민희무대결전이 침에하게 벌어지는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대규모의 평양초청행사를 부소 조직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대대같은 은성속에 꿈만 같은 날과 날을 맞고 보낸 우리의 국방과학자들이었다.

그들모두는 공화국상전 69勳을 맞는 뜻깊은 날에 주제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하나를 주시던 일,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미안불러 보낸 평양제류의 나날들을 감격

속에 들어켜보았다.

진정 그것은 지실길이 묻혀있는 핵무기개발자들의 피와 땀, 영웅적위훈의 감격깊이를 속속들이 다 헤아리며 가장 값높이 빛내어주시는 어머니당의 국방과학전사된 영예와 긍지를 가슴후덕이 걸감한 나날이었다.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강용한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한 핵전투에 용감 뛰어들어 그 어떤 명예와 평가를 바라며 없이 다 바치며 당의 명령을 거머쥔 관철한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인사들과 나누는 식별의 정은 참으로 뜨거웠다.

조국과 인민의 열렬한 축하를 받아안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투초소로 뛰어나는 핵무기개발자들이 불어선 창전네거리에서 《거리라 백두산으로》, 《우리는 만리마기수》 등의 힘찬 노래선율이 울려져서고 너영원들의 맑은기쁨이 펼쳐졌다.

불타는 애국총정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만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결사보위한 핵개발자들의 투쟁기풍으로 만민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전군중에서 열정의 우물땀을 바쳐가

고있는 근로자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위훈자들을 바래워주었다.

군중들의 열광마다에는 우리 당의 미더운 핵무기개발자들이 있기에 주재단의 줄기찬 피성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총전군중에게 승리의 촉포성으로 더 높여, 더 힘차게 울려져지러는 확신이 넘쳐올랐다.

《사회주의진전기》의 노래가 전진하는 연도에서 성, 중앙기관 인군들과 체육인들이 꽃다발을 열정적으로 흔들며 위훈자들을 환송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탄생한 정사로운 6월에 수소탄의 거대한 피성을 가장 장대한 승전가로 어머니조국에 삼가 드린 영웅들에게 대한 환송열기로 고조되는 속에 피스행렬은 만수대언덕을 가까이하였다.

주제조선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우리로써 국방과학자들은 수소탄시험의 완결성공으로 민족사적대정사를 안아온 투쟁기세를 순간도 늦추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로 굳건한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기

위한 애국의 한길에서 헌신의 자욱을 새겨갈 위훈자들의 마음을 안고 피스행렬은 천리마동상과 개선문으로 이어진 환송의 물결을 헤가르며 달리였다.

군중들은 수소탄의 불피성으로 원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인겨주고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개와 위용을 만민에게 파시한 자랑스러운 핵개발자들을 향해 꽃다발을 흔들고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뜨겁게 바래워주었다.

보내는 마음, 떠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수도의 거리들에 끓어치는 환송의 꽃물결, 이는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도 뜻도 승검도 같이하며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을 끊임없는 기적적성공과 빛내어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었다.

강국의 위상이 빛발쳐 더 맑고 더 푸르든 사회주의조국의 하늘가에 치솟는 천만군민의 자긍심이던듯 수도의 거리들에 《나가자 조선이 병진 앞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노래들이 울려져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출발,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송



2 면에서 계속

북송대거리에 펼쳐진 학생소년들의 공연 무대와 최주악대의 주악이 환송분위기를 더해주고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단방에 펼친 국방과학진사들에게 보내는 《인녕히 가십시오.》, 《새로운 승전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등 격성에 넘친 목소리가 연방 미저울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이상과 포부, 애국충정의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떠나는 려개발사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레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자넉었다.

내 마음의 고향, 수도 평양이여 잘 있으라! 내 인제나 너를 심장에 안고 새로운 승전포성을 편이어 울려가라.

수도의 거리들에 흩어넘치는 환송의 열풍은 우리 국방과학진사들이 위대한 당의 의지를 안고 수도시민들에게 담배를 더욱 굳건히 지켜가리라는 조국과 인민의 믿음이며 기대였다.

력 무기 개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대로 세계최강의 려단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진전을 믿음직하게 받들어나갈 의지를 안고 수도시민들에게 담배를 보냈다.

백투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당 제7차대회 결정판별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나아가는 국방과학진사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갈 우리 인민의 결의를 담은 혁명적이며 진부적인 구호를 우리 수도의 거리들을 진감하였다.

우리 당의 장하고 미더운 핵전투원들에게 대한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붙어 주체의 령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단방에 펼친 그 기적, 그 기적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기어 이룩해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당신의 생일 52돐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와 전무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훌륭한 명도민에 수리아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명도완정을 위한 투쟁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106(2017)년 9월 11일 평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파쭈끼스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두산베

파쭈끼스탄공화국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각하

나는 파쭈끼스탄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의 이익에 맞게 튼튼히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귀국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6(2017)년 9월 9일 평양

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민주평고단체 불레틴특간호 발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민주평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8월 29일 불레틴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불레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자애로운 어머니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정권건설노선을 제시하시고

유적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였다.

조국해방후 그이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마침내 공화국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명도민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마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또한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사회주의공명회의 력사의파업을 완수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과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교 김정일명도자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사회주의보루로 존엄발전 공화국은 김정일명도자의 손길아래 인민의 몸과 피상이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박력으로 더욱 빛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선군절에 즈음하여 로키아 나호드카 포르마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8월 23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장에는 백두산원출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영적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출판사장인 블라디미르 로키의 기본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조선인민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였기에 단 한번의 로선상차오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로 힘있게 전진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로키아판방산당 연태변강 나호드카위원회 비서 제르니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애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총칭하게 만들어나가는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서 이로작을 발표하시였다고 생각된다.

조선이 군력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이라크, 리비아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했을것이다.

누구도 남의 운명을 책임질수 없으며 자기 힘이 약하면 힘과 자들에게 먹히우기마련이라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지역에서 또다시 대규모적인 침략전쟁 연습을 벌여왔지만 이것은 한갓 허세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려

무기와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조선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리라는것은 불모듯 명백하다.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면대성을 보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속진회회가 8월 2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한결본》의 전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8월 30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추억과 회상》을 향하여 힘차게 써워나가자》의 전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면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가 1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조선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세계언론들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무기개발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그의 친필명령에 따라 단행본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프레스TV방송은 북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장착용 수소탄을 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 려무기연구소에 있는 수소탄을 보여주셨다. 그이께서는 수소탄의 모든 구성요소가 100% 국산화되었다고 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베네수엘라신문 《엘 몬도》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켓 전무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여주셨고 정밀대단하다고, 조선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진 조강도목발력을 가진 주체식일렉트릭을 직접 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백두령강의 힘을 감할없이 겹어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시며 조선의 과학자들이 당에서 걸심만 하면 못내는것이 없다고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소탄의 기술적제원과 구조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앞으로 강령력한 려무기들을 마음먹은대로 평양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리아의 사나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참석하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현 국제정치상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를 분석평가하였다. 또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함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시험을 단행함에 대한 명명에서 실현시명하시였다.

시험은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다.

쿠바의 브렌사 라피나통신은 이번 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켓 전무부에 장착할 수소탄제작에 새로 연구도입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기술의 정화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충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조선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려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수리아의 신문들인 《알 바아스》, 《리슈엔》, 《알 사우라》, 《알 와판》, 중앙TV방송, 웹상의 신문 《라임나엔》, 인터넷신문 《바오미》, 인터넷통신 브이엔엑스 프레스, 인디아의 ANI통신, 유럽 아이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디안 엑스프레스》, 《힌두》, 《스태츠맨》, 《에이선 에이취》, NDTV방송, 지 뉴스TV방송, 인터넷통신 보이소 오브 밀리언즈, 베나신신문 《알 디야르》, 중국의 신화통신, 중앙TV방송, 중국도모당, 환구망, 청년망,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쿄신문》, 《아시아신보》, 《마이네이션》, NHK방송, 에셋트신문들인 《알 야움 알 싸비아》, 《알 미스리 알아움》, 《알 자즈》, 나이제리아의 AIT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도이쉴란트의 레페아통신, 영국의 BBC방송, 로제의 파르통신, 리아 노보스페 통신, 인페르티통신, 신문들인 《로키스카야 가제타》, 《이제스 제야》, 《푸에르토프》, 《에자비시 마야 가제타》, 로키아 24TV방송, ITV방송, 엔레페TV방송, 멘페레TV방송, 에로 모스크비방송, 인터넷통신들인 뉴스루, 음, 페스커, 두, 베네수엘라의 엘피에르 TV방송,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신문 《뉴욕 타임스》, CNN방송,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 도이쉴란트방송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과 백두산레스크조선친선협회, 폴스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연구를 위한 국제친선발전기,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평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에퍼도 김정일도서관, 주체청년신문,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면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이 《김정은명도자 려무기개발사업을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전행》, 《조선 수소탄시험 성과적으로 단행》, 《북조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소탄 제작》, 《조선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등의 제목으로 우와 같은 소식들을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신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불패의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자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 시, 군들에서 련일 진행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 시, 군들에서 련일 진행되고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외롭게 참가하였다.

대회장에서는 국가력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이라는 민족사적사건을 맞이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불패의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감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가 세계에 맥박치고있었다.

정주시, 강남, 연안군에서 진행된 군민경축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69년이 되는 뜻깊은 명절을 앞두고 행성을 진감하는 초강대국기회의 피성을 이룩하는 자력경쟁의 기치높이 최후 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친배의 신심과 용기를 인격은 대경사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막을수 없게 세상에 없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백두의 명기장에서 창조된 자력경쟁의 정신을 계속같이 계승하고 늘 눈앞에 과학기술성공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세대 제1선함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가을걷이와 낱알덜기를 잘하여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자력경쟁대진군으로 주체의 핵강국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펼쳐갈 줄은 결의는 물론, 부원군 등의 군민경축대회장에서도 울려퍼졌다.

연설자들은 애국의 열정안고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산과 축산, 수산부문을 혁신적성공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러는것을 명심하고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며 일터와 마을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 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귀족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디에서 정훈의 습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행함으로써 수소탄시험성공의 피성을 새로운 영웅청년선화창조의 민초소리로 불렀다.

연설자들은 최대의 원수위인인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간직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투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대학원, 대학원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은 나라 전민군은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단벽, 드림없는 선군의지를 안고서 력사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조선의 존엄높은 위상과 무궁번영할 배를 심장으로 활짝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조국이 세계가 경탄하는 비상한 속도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거언히 솟아 오르게 된것은 최대의 원수위인인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명도와 불굴주의의 헌애에 의하여 이룩된 거적사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뜻을 이어 령양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서 떨쳐주고 주체혁명위업

의 승리적진과 천만년미래를 영원히 담보해 주신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위상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세가 아무리 엄중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리에 천천만명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병진로선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두렵지 않으며 정권은 뜻할 요새가 없습니다.》

연설자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 용위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뼈에 새기고

천경만경의 생세, 방배가 되어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경사용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날로 가증되는 미래와 추종세력들의 핵공감소등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고 생산적의 열정을 분신시, 민심군민경축대회장에서도 높이 울려퍼졌다.

대외에서 연설자들은 69년의 대승리는 정권은 최고명도자동지의 덕도의 담력과 배양, 분원분류의

애국헌신과 땅의 위업에 불없이 충직한 국방과학진사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만만년민족사에 투기할대 사변을 안아온 백전무퇴를 처럼 당의 병진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혼련혁명 5대방위관현에 용매전하고 작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존엄을 건드린다면 천백배의 보복성정으로 원수의 무릎을 꿇게 할것을 약속하며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백두기개발자들의 투쟁기풍, 창조분배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진장미디에서 우리 당의

필요지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에서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자기 지방의 혼한 천료와 자재로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혼련혁명 5대방위관현에 용매전하고 작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존엄을 건드린다면 천백배의 보복성정으로 원수의 무릎을 꿇게 할것을 약속하며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백두기개발자들의 투쟁기풍, 창조분배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진장미디에서 우리 당의

필요지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에서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으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자기 지방의 혼한 천료와 자재로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혼련혁명 5대방위관현에 용매전하고 작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존엄을 건드린다면 천백배의 보복성정으로 원수의 무릎을 꿇게 할것을 약속하며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백두기개발자들의 투쟁기풍, 창조분배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진장미디에서 우리 당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번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1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년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철동지와 김근국 해외동포사업국장, 관계부관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경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년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김경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년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김경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년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김경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년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김경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년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김경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년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김경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년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김경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재일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년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년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일선 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년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박물관이 전시되어있는 만경대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조국과 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은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다.

대표단은 또한 철공혁명사적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일성체육관 종합스포츠장을 참관하였다.

김일선 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년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박물관이 전시되어있는 만경대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조국과 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은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다.

대표단은 또한 철공혁명사적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일성체육관 종합스포츠장을 참관하였다.

김일선 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년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박물관이 전시되어있는 만경대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조국과 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은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다.

대표단은 또한 철공혁명사적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일성체육관 종합스포츠장을 참관하였다.

2017년 세계구급처치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2017년 세계구급처치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1일 평택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꾼들, 청소년적십자회원들과 우리 나라에서 사임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십자회 국제위원회대표단,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 주조 외교 및 국제

2017년 세계구급처치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1일 평택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꾼들, 청소년적십자회원들과 우리 나라에서 사임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십자회 국제위원회대표단,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 주조 외교 및 국제

2017년 세계구급처치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1일 평택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일꾼들, 청소년적십자회원들과 우리 나라에서 사임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십자회 국제위원회대표단,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 주조 외교 및 국제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데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의 끈기를 키우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조국과 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은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정권은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다.

대표단은 또한 철공혁명사적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일성체육관 종합스포츠장을 참관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오대영을 단장으로 하는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1일 있었다.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 일행 귀국

이노기 간지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과 일행이 11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